



수원상의 '중동전쟁과 세계정세' 조찬강연회

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는 최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를 초청해 '중동전쟁과 세계정세'를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강연회에는 수원상의 회원업체 대표와 임직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이 갖춰야 할 대응 전략과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앞서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강연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박현도 교수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각국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층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